

# 진도, 농업기술진흥원과 손잡고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



이재각 진도군수(왼쪽)는 최근 진도군청에서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과 농업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 표준화 모형 추진...우수 종자·품종 보급 확대 협력 이재각 군수 “농업 한 단계 더 도약”...2년간 사업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이재각 진도군수와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업 분야

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농업 기술의 공유와 우수 종자 보급,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첨단농업 분야의 포괄적 기술 협력, 표준화 모형의 현

장 확산, 신품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확대,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농업시설과 기자재 공동 활용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선진 농업기술과 연구성과를 지역 농업 현장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농작물 육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대한민국 농업기술

실용화를 선도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협약으로 진도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과 우수품종 보급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진도군의 풍부한 농업자원과 진흥원의 첨단 기술 및 연구 기반이 결합해 동반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진도군의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신안, 이태리 피에트라산타시와 자매도시 추진 김태성 군수·지오바네티 시장 간담회...2024년 이후 후속 협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최근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모험박물관에서 알베르토 스테파노 지오바네티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지난 2019년 첫 방문으로 인연을 맺어 2024년 6월 문화 교류와 상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 협의로 마련됐다.

김태성 군수는 의향서 체결 이후의 추진 성과와 2027년 신안군립미술관 개관 계획을 공유하고, 양 도시 관계를 정식 자매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앞서 신안군의회는 2024년 3월 자매결연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양측은 2027년 신안군립미술관 개관전에 모험박물관 소장품을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신안군은 개관전 기획전시관을 피에트라산타의 조각 전통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피에트라산타시가 대리석과 조각으로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하는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배우고 싶다”며 “정식 자매도시 체결을 통해 두 도시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최근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모험박물관에서 알베르토 스테파노 지오바네티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청

## 해남, 영농 부산물 파쇄 추진 군,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고 산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은 수확기 이후 방치되기 쉬워 가을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군은 9월 중 파쇄지원단을 구성, 10~11월에는 신청 농가를 직접 찾아가 고춧대, 들깨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을 파쇄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해남군에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농가와 마을은 파쇄할 영농 부산물을 작업이 가능한 지정 장소에 사전 집적해 두어야 한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영농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 농업인, 장애인 농업인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올 상반기에도 147농가 12.3ha 규모의 영농 부산물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수확철 영농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 순회 파쇄를 확대해 농가의 처리 부담을 덜고 불법소각을 예방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을철 영농 부산물을 적기에 파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농가 편의를 높이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강진 ‘햇빛소득마을’ 행안부 공모 3차 도전 화방마을·죽현마을 등 신청...사업 안내·홍보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군동면 화방마을과 작천면 죽현마을 등 2개 마을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이번 3차 공모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계획 수립 등 공모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발전 수익을 지역공동체에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공모요건을 갖추고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 영암 덕진면·일본 하기시, 35년 인연 다시 잇는다

1991년 민간교류 시작·2003년 자매결연...11년 만 재개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덕진면과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가 1991년 시작한 인연을 다시 잇고 문화·관광·농업 분야 교류 재개에 나섰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덕진면 공무원과 이장단, 영암농주농협 등 2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최근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를 찾아 양 지역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5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덕진면과 하기시의 교류를 다시 잇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하기시 명문학사에서 다카후미오 하기시장 등 현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관광과 농업·농산물 유통, 민간단체 교류 등 양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카후미오 하기시장은 방문단을 환영하며 트럼펫으로 대한민국 애국가를 직접 연주했다. 하기시측은 지역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덕진면과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덕진면과 하기시의 인연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덕진면 청계마을 출신 고 배관석씨의 주선으로 민간교류를 시작했고, 초청과 답방을 이어오다 2003년 6월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이후 김장 담그기와 사물놀이 등 주민 중심의 교류를 이어왔지만, 양 지역을 연결해 온 배씨가 2015년 별세한 뒤 교류가 중단됐다. 이번 방문에는 배씨의 동생인 배조복 덕진면 이장단장도 함께했다.

배조복 이장단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이어지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양 지역 주민들이 다시 오가며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초대석**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생산비조자 보전 어려운 농업 ‘구조적 한계’ 돌파해야”

**초대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  
“전남광주 대전환 기회 경제 대도약 열어나갈 터”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홍윤진** 루트머지(주) 대표  
“전통에 현대 더해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로”

**시대공간**

**윤형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도시재생과장  
“도시를 바꾸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2026.10 vol. 161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광주의 10월은  
노래 흐르는 거리, 꽃으로 물든 강변  
남도의 가을이 깊어진다

문득여행  
당일치기 영암여행  
문화유산이 있는  
호남 대표 명촌에서 머물다

전라도인  
2026. 10월 14일

**커버스토리**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인문도시를 넘어  
AI 경제도시로 대전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래 다시 그린다**

인구증가·인문도시·문화관광 등 성과 토대  
민생 중심 행정...AI 헬스케어 미래 동력 육성  
노포 맛집 발굴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박차